

## 1910~1920년대 대중교인들의 반일활동과 그 교훈

김철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교의 교인들은 자기네 교의 사명이 일본과 만주국의 기반에서 벗어나 조선민족에 의한 배달국의 재건을 기도하는것이라고 하면서 반일활동을 벌렸다고 합니다.》

(김일성동지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계승본 제8권 418페이지)

대중교는 19세기말~20세기초 일제의 조선침략과 비법적인 강점으로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기세가 높아가고있던 시기 라철을 비롯한 선진적인 사상가들이 나라를 찾기 위한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 발생하였다.

대중교는 당시 성행하던 카톨릭교나 불교 등 외래종교들과는 달리 실지 존재하였던 민족의 원시조 단군을 숭배하고 조선민족의 기원과 단일혈통성의 시점을 단군으로부터 찾는 애국적인 민족종교이다.

대중교는 자체의 진보적이고 애국애족적인 성격과 리념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널리 전파되었으며 1910~1920년대 나라의 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일정한 긍정적기여를 하였다.

1910~1920년대 대중교인들의 활동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민족사를 말살하려는 일제의 책동을 반대하여 애국적인 활동을 벌린것이였다.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정치군사적폭압과 강도적인 경제적착탈을 강화하는 한편 조선인민의 민족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일제가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제일 우려한것은 조선사람들의 민족적자부심이였다.

이로부터 일제는 강점직후부터 조선력사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단군과 조선고대사말살책동을 저들의 식민지정책의 한 고리로 틀어쥐고 우리 민족사의 유구성과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으로서의 공지와 자부심을 말살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제는 1925년에 《조선사편수회》를 내세워 새로 《조선사》를 편찬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유구한 우리의 민족사를 저들의 력사보다 뒤늦은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단군조선의 력사를 의도적으로 빼버렸다.

그리고 1911년 8월 제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조선에서 실시하는 식민지노예교육의 근본목적과 방향을 규정하면서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따라 총량한 국민을 육성하는것을 본의로 한다.》고 함으로써 조선사람을 저들의 《천황》에게 《충성》하는 《일본사람》으로 만들려고 책동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교인들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민족사를 알려주며 단군민족의 우수성을 론증하는데 많은 힘을 넣었다.

1910년대 우리 나라의 민족주의사학은 대중교와 밀접히 련관되어있었다.

이 시기 제2대 도사교였던 김교헌이 쓴 《신단실기》, 《신단민사》, 《단조사교》, 《배달족력사》, 《신리대전》 등의 력사책이 간행되어 민족주의사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였다.

김교헌은 《신리대전》에서 우리 민족의 발전사와 단군이 《만민복지사회》를 건설한데 대하여 서술하고 고조선의 영역과 단군조선의 국가통치제도를 언급하였으며 당시 사람들이 단군에 의해 밝은 레의법절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그때 벌써 농사짓는 법과 누에치는 법, 실 뽑는 법 등을 배워 세상에서 처음으로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누려온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김교헌은 또한 《신단실기》와 《신단민사》에서 단군조선과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의 역사를 발전적견지에서 해설하였으며 단군이 우리 민족사를 열어놓고 발전시킨 시조일뿐아니라 그가 나라를 잘 다스려 고조선을 강국으로 발전시켰다고 묘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단군을 숭배하도록 하였다.

교직자들과 함께 당시 민족주의력사가들은 대종교인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단군조선사와 민족의 우수성을 론증하는 글들을 많이 서술함으로써 대종교인들의 민족사연구활동을 한걸음 전진시켜나가게 하였다.

대종교는 처음부터 독립운동을 목표로 한 종교단체로서 그 교리나 실천강령이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띠고있었다.

그것은 1910년대 만주에서의 반일독립운동을 전개한것이 대종교단이었다는것을 놓고도 알수 있다.

특히 박은식, 신채호 등 민족주의력사가들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대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역사연구와 편찬활동을 벌렸고 따라서 그들의 사학에는 대종교적인 성격이 강하게 지배되고있었다.

제3대 도사교 윤세복에 의해 대종교의 영향을 받은 박은식은 《한국통사》를 비롯한 적지 않은 역사책들을 집필하여 조선민족사를 고수하기 위한 사업에 자기의 한생을 바치였다. 그는 《나라는 없어질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수 없다.》고 하면서 단군조선사를 되찾고 그것을 새로운 민족서관에 기초하여 서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의 명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민족정신을 고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제의 조선사의곡말살책동을 날날이 폭로하였다.

대종교인들의 민족사연구에 큰 도움을 준 역사가는 신채호였다.

그는 후대들에게 우리 민족의 유구한 애국전통과 찬란한 문화를 소개하고 조국애를 고취할 일념밑에 국사서술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바친 사람이였다.

그는 윤세복의 영향을 받아 대종교가 주장하는 단군민족사를 론증하는 책들을 써서 민족사를 널리 해설선전하였다.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사대주의서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우리 민족사를 외곡한 김부식을 사대주의서관의 죄인으로 규탄하였으며 조선민족은 상고부터 강대하고 지혜로운 민족이었다고 긍지높이 자랑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일제의 민족말살책동에 동조하여 단군조선사를 역사서술에서 제외시키는것을 민족반역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대종교는 우리 민족사를 말살하려는 일제어용사가들의 논리와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조선력사를 연구하는데서 일정한 긍정적역할을 하였다.

1910~1920년대 대종교인들의 활동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민족정신과 반일독립사상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사업을 벌린것이다.

이 시기 일제의 가혹한 무단통치로 하여 애국적인 교육활동이 완전히 말살되고있던

국내와는 달리 중국동북지방은 일제침략의 마수가 아직은 미치지 못하고있거나 덜 미치고있어 계몽사업을 비교적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할수 있었다.

대중교인들은 1914년 5월 대중교총본사를 경성(서울)으로부터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간도의 화룡현 청파호로 옮기었으며 여기에 새로 고정각과 고정사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교인들과 동포들의 자녀교육을 위하여 화룡현에 청일학교를 비롯한 10여개의 교육시설을 내오고 우리의 민족사와 애국독립사상을 가르쳤다.

학교들에서는 조선력사, 조선지리, 국어 등과 함께 일제의 조선강점전에 국내에서 리용되던 책들 등을 교과서로 리용하였으며 사람들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배출한 애국명장들의 투쟁사를 깊이 연구하여 단군민족의 민족성을 끝까지 고수하고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사상을 주입시켰다.

대중교의 민족교육에서 주목되는것은 국어교육이었다.

대중교에서는 입교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일 즉 봉교과규(奉敎課規)에서 《봉교인은 물론 남녀를 막론하고,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자는 마땅히 국문을 선습(先習)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대중교의 교리를 알고 겨레가 나아갈 길을 깨닫기 위하여서는 문자를 해득하여야 하는데 어려운 한문보다도 알기 쉬운 우리 국문을 먼저 배우는것이 필요하다는것이였다.

특히 일제의 민족어말살책동으로부터 우리의 말과 글을 굳건히 지켜내고 민족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애국적인 대중교인들은 여러 학교와 강습소들에서 우리 글을 가르쳤다.

이것은 우리의 언어와 력사를 지키고 그를 통해 민족정신을 발양시키기 위한 대중교 교육활동의 애국적성격을 명백히 보여주는것이였다.

1910~1920년대 대중교인들의 활동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한 독립군활동을 조직전개한것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대중교인들이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 나라를 영원히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일제의 발악적인 책동을 반대하여 손에 무장을 잡고 독립군활동에 참가하였다.

대중교인들은 우선 반일무장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여러 무장단체들을 조직하고 확대하였다.

대중교인들은 왕청현에서 대중교의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조직하였던 《중광단》을 《정의단》으로 개칭하였으며 그후 《정의단》은 대중교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북로군정서로 개편되였다.

북로군정서는 본영을 길림성 왕청현 서대파구에 설치하고 군대를 늘이고 무기를 구입하는 등 싸움준비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부대는 초기 500명의 인원과 장총 500정, 권총 40정, 기관총 3문 등을 가진 부대로부터 1년후에는 1 600명의 인원과 장총 1 300여정, 150여정의 권총, 7문의 기관총을 가진 큰 무력으로 발전하였다.

1925년에 일제가 만주에서 활동하는 조선인독립운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중국반동군벌과 비밀협정인 《미쓰야협정》을 체결하면서 《대중교의 중요간부 서일이 대한독립군총재로서 그 교도를 이끌고 일본에 항전하였으니 대중교는 곧 반동군단의 모체로서 종교로 가장한 단체이다. 중국에서 령토책임상 이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한것을 통해서도 대중

교인들의 반일항전기세를 엿볼수 있다.

한편 제3대 도사교 윤세복은 무송지방에서 포교활동을 벌리는 한편 교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마을들에서 반일무장단들을 조직하였다.

이러한 독립군단체들은 그 규모나 활동방식에서 서로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가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것을 목적으로 한 대종교인들의 애국적인 조직들이었다.

대종교인들은 또한 군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들을 설립하여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독립군활동도 지원하였다.

당시 만주의 여러 지방들에는 독립군군사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 학교들이 생겨났는데 류화현에는 신흥강습소, 왕청현에는 심리평사관련성소(사관학교), 안도현에는 소사하훈련소 등 여러개의 무관학교들이 있었다.

왕청현 심리평사관련성소는 북로군정서의 장교들과 사관들을 양성하는 학교였다. 이 학교는 400명이상의 학생들을 수용할수 있으리만큼 규모가 적지 않았는데 왕청과 그 아근의 농민들이 군정서군인들에게 보낼 초신과 식량을 운반해갈 때에는 서대과까지 우마차가 꼬리를 물고 늘어섰다고 한다.

무관학교들에서는 학생들에게 단군숭배사상과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반일애국주의를 고취하였으며 일제의 정규군과 맞서 싸우는데 필요한 군사전법과 육체적준비를 갖추는데 중심을 두고 군사교육과 군사훈련을 결합하여 진행하였다.

이밖에도 교직자들인 김교현과 윤세복, 서일, 김소래 등은 자기들이 세운 사립학교들을 통해서도 단군숭배사상과 항일정신을 주입시키고 졸업생들을 무장부대에 파견하는것으로써 독립군활동을 후원하였다.

대표적실례로 화룡현일대의 대종교교직자였던 김소래는 건원학교를 설립하고 서일과의 연계밑에 북로군정서에 졸업생들중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하여 보내주었다.

대종교인들은 무장단체들을 조직하고 군사인재를 양성하는것과 함께 일제와 맞서 용감히 싸웠다.

1920년 10월 북로군정서는 중국 동북부에 있던 군벌들의 압력으로 본거지인 왕청현 서대과를 떠나 백두산동북부로 이동하던중 화룡현 삼도구 청산리에서 일본정예무력과 조우하게 되었다.

10월 21일 청산리 백운평골짜기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독립군은 수많은 일본군을 섬멸하였으며 천수평과 어랑촌에서도 적 대부대를 습격하여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대종교인들의 활동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 민족의 시조를 내세우고 민족수난의 비극을 끝장내기 위한 애국애족적활동이었으며 이것은 1910~1920년대 무장투쟁을 기본으로 하여 절정을 이루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대종교는 시대적,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참다운 진로를 밝히지 못하였으며 이로부터 대종교인들의 활동은 심중한 교훈을 남기게 되었다.

대종교인들의 활동은 민족의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옳바른 지도사상을 가져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대종교인들은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손에 무장까지 들고 싸웠지만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였기때문에 참다운 구국의 길을 찾을수 없었으며 결국에는 일제의 탄압으로 사분오열을 면치 못하였다.

대종교인들의 활동은 맹목적인 단군숭배와 대종교의 리념으로는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수 없고 사람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줄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도 남기였다.

대종교의 창시자인 라철을 비롯한 대종교인들은 민족의 시조를 숭배하고 따르는 사상으로 사람들을 무장시키면 나라를 되찾을수 있다고 그릇되게 생각하면서 민족의 종교를 만들고 그를 통한 국권회복의 길을 모색하였다. 그러다보니 대종교인들뿐아니라 전민족이 공감하고 따를수 있는 참다운 리념을 내세우지 못하고 종교적방법에 의거하게 되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반제통일전선의 기치밑에 전민족을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조국해방의 위업은 비로소 이룩되게 되었다.

민족의 우수성은 민족의 넋을 찾아주고 빛내여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주는 수령의 위대성에 있다.

우리 민족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심으로써 위대한 민족으로 되었다.

전체 조선민족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이룩함으로써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떨쳐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대종교, 독립운동